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인력충원! 전임자 임금 해결! 실질

투쟁속보

파업기일차

2021년 9월 2일 목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재욱

파업에 돌입하며

직원들의 절절함을 들어달라는 파업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파업

과연 사측은 타결의 의지가 있었나!?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의 원인제공자는 의지없는 사측!

9월 1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노사 마지막 교섭, 결국 사측의 타결안은 나오지 않았다.

본교섭에서 사측은 모든 것을 실무교섭에서 논의 하자는 말로 본교섭을 회피했다. 또한 사측 교섭위원이 “실무 교섭위원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말로 실무교섭에서는 타결안이 나올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시작된 실무교섭에서 사측은 어떠한 안도 내지 않았으며 타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자율타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우리지부는 조정신청을 접수하기에 이르렀고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3차례의 집중교섭을 진행하라는 주문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적어도 교섭 횟수는 채워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 그러나 우리지부는 사측과 단 두 번밖에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으며 그 회의마저도 실무교섭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며 타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의료원은 이번 파업의 책임이 우리지부에게 있다는 것처럼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에게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앞서 말했듯 아무런 의지도 없는 사측과의 교섭은 결국 중노위 위원으로부터 ‘조정중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의료원은 이런 분위기를 알리 없는 직원들에게 마치 노조가 파업을 하려 일부러 조정을 받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는 우리 조합원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조직을 와해시키고 파업의 의지를 꺾으려는 공작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교섭이 마라톤 교섭 끝에 극적인 타결을 한 것을 확인한다면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우리는 파업에 돌입한 지금도 의료원이 타결안을 내놓는다면 성실히 교섭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지부가 파업을 돌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직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의료원이 귀담아 주기를 원했던 간절함이었고, 인력이 없어 허덕이고 병을 키워가며 일할 수 밖에 없는 절절함을 알아달라는 호소였다.

이제라도 의료원이 직원들을 위한 타결안을 내놓는다면 우리지부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임을 천명한다.

합찬 투쟁! 가자 파업으로!

파업을 힘차게 준비하기 위한 심호흡으로 진행된 3개 병원 파업전야제에는 약 65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전야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며 온라인 집회로 진행됐다. 6시부터 약 한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대회사 및 현장발언과 공연을 통해 전 조합원의 파업 의지를 드높였다. 산별 총파업 전야제가 끝난 뒤 노재옥 파업대책 본부장의 교섭상황 공유 및 파업 지침 발표로 마무리됐다.

